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2년 11월호 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http://www.durano.com/moksin>)

## 성도들을 존경하는 목회자가 되십시오

강준민 / LA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2002. 11  
(요약된 내용입니다)

목회자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목회자가 지식이 많아 질 때 영향력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지식이 많은 목회자는 전체를 볼 줄 알고, 깊이 볼 줄 압니다. 많이 안다는 것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쓸모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에머슨은 “현명한 사람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 것들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많이 안다는 것은 별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모든 정보가 책과 컴퓨터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회에 핵심이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목회에 정말 중요한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쓸모 있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실천을 통해 존재화됩니다. 쓸모 있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승리를 위해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존경의 원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훌륭한 목회자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존경받는 목회자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목회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목회자, 존경받는 목회자는 적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존경받는 목회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분들이 소유한 목회 승리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힘써 왔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한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것 이상으로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입니다. 존경받는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인정받는 일에 목말라 있습니다.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목회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먼저 성도들을 존경하는 분들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률의 원리는 여전히 목회 현장에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마 7:12)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은 목회자가 막연하게 구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존경은 목회자가 먼저 성도들을 존경할 때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목회는 관계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과 서로 존경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목회는 쉬워집니다. 갈등은 축소되고, 교회는 사랑과 존경의 분위기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가르치는 것보다 많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의 고민은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것만큼 성도들을 사

랑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하는 대상을 깊이 사랑하는 목회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마음속 깊이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심 없이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치를 아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도들과 공동으로 목회하는 놀라운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목회자의 성도들을 향한 존경심은 성도들을 보는 시각에 따라 좌우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목회자 자신의 양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목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들을 존경하려고 노력합니다. 싸움이나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제 양들이 아니라 주님이 제게 맡기신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일 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일로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능력과 상관없이 존경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로만 사람들을 평가해서 사랑한다면,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인들도 정상인과 같이 너무나 보배로운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사랑을 받는 것은 어떤 성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한 감정과 깊은 상처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인격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들은 그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싸우거나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은 정상인이 아니라 인격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인격 장애를 안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성심껏 치유를 도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문제가 없고 유능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을 훌륭하게 성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보는 시각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존경심입니다. 생명에의 경외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존귀히 여기는 영성훈련을 해야 합니다. 존경심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존경심은 우리의 언어

로 표현됩니다. 목회자의 언어는 목양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존경하는 언어를 쓰게 되면 교회는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존경하기 위해서는 예절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절이란 말은 본래 궁중언어입니다. 왕실의 예법이 예절입니다.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중의 예의로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땅에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막 10:45). 목회자들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 간다면 목회현장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